

하룻밤새 상가 6곳 털려... 절도상습지역 주민 불안

광주 북구 본촌동 아파트 인근 미용실·호프집 등

2011년 이후 벌써 세번째...경찰은 윤곽조차 파악못해

광주에서 하룻밤 사이 아파트 상가 6곳이 잇따라 털리는 등 최근 한 달새 이 일대에서 절도사건이 잇따르면서 입주인·가게 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 상가 중 일부는 올해 초와 2년 전에 도난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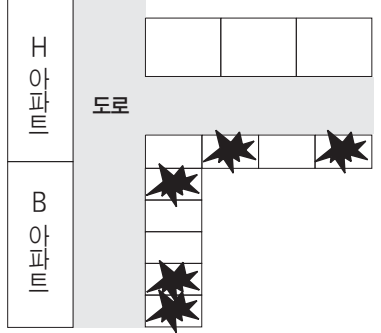
해당 경찰서는 전국 경찰서 중 절도범죄 발생건수가 상위권인데도, 담당 경찰관들은 예방은 커녕 발생한 사건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가벼운 범죄 다루듯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자 풍기고 있다.

11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3시~5시 사이 광주시 북구 본촌동 H아파트 앞 상가 6곳에 누군가 침입해 현금 등을 훔쳐갔다.

피해를 본 가게는 미용실·공인중개사사무소·호프집·치킨집·세탁소 등이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2000원, 많게는 10만원이다. 범인은 가게 뒷문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절단하거나 출입문을 아예 부순 뒤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주변 상가 범행발생 장소



범인은 또 치킨집에서 라면까지 훔쳐먹고 도망가는 등 여유까지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게 중 일부는 지난 2011년과 올해 초에도 잇따라 털린 적이 있는데, 경찰은 이번 절도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유사한 점

으로 미루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 달 전에 H아파트와 인접한 B아파트 1층 빈집에 누군가 침입,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범인은 이날 초저녁 불이 꺼진 저층 빈집 2곳을 턴 뒤 모습을 감췄다.

이 같이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사건 해결을 위한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형사팀 1개 반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리겠다는 방침만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경찰이 "이런 단순 절도 사건까지 취급해야 되느냐"라는 인식을 갖고 단순 폭행사건 해결하듯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북부경찰은 지난해 전국 249곳 경찰서 중 절도 발생건수가 3598건으로 전국 5위를 차지했다. 1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9.85건의 절도사건이 북구지역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 일대 아파트·상가 절도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입주인·가게 주인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도난 피해를 당한 가게 주인은 "다 큰 가게 주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 가게, 저 가게 털렸다'는 얘길 자주 듣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는데, 순찰이 강화해준다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도박연예인' 줄소환

이수근·탁재훈 이어

토니아·앤디·봄도 조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의 배팅을 한 혐의로 그룹 H.O.T 출신인 가수 토니아(35·본명 안승호), 신화의 앤디(32·이선호), 봄(31·이민호) 등 3명을 지난달 소환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영구 프리미어리그(EPL) 축구경기의 승리팀을 예측해 휴대전화로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방식으로 한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모두 수억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같은 혐의로 방송인 탁재훈(45)씨를 소환한데 이어 10일 개그맨 이수근(38)씨를 조사하는 등이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女心 흘리는 만추

11일 나뭇잎이 질겨 물들어 만추(晩秋)의 정취가 깃들여 있는 광주시 북구 용두동 한 도로의 가로수 사이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檢, '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항응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57) 전 법무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금명

간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차관을 불러 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자들의 진술도 잇달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이 주장한 날짜에 김 전 차관이 실제로 윤씨 별장을 방문했는지, 성접대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해당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해선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폭행, 협박·강요

등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윤씨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윤씨에게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해당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해선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폭행, 협박·강요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출 07시 04분 / 해침 17시 29분 / 달출 14시 12분 / 달몰 01시 27분

꼭 떨어진 기온

광주	구름맑음	3/11℃
목포	구름맑음	4/12℃
여수	구름맑음	5/12℃
나주	구름맑음	1/11℃
완도	구름맑음	5/12℃
구례	구름맑음	0/12℃
강진	구름맑음	3/12℃
해남	구름맑음	3/12℃
장흥	구름맑음	2/13℃
순천	구름맑음	0/12℃
영광	구름맑음	3/11℃
진도	구름맑음	5/10℃
전주	구름맑음	0/11℃
군산	구름맑음	1/11℃
남원	구름맑음	-2/11℃
홍산도	구름맑음	8/11℃

〈오전〉 바다

방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관심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관심	보통

〈오후〉 바다

방향	파고	미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목포 09:25 / 02:2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22:01 / 14:43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여수 04:43 / 10:3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17:18 / 23:35

◇주간날씨

날짜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3/14	5/16	7/16	5/17	7/15	4/13

법원 "23년 섹스리스 노부부, 이혼 안된다"

60대아내 황혼이혼 소송 패소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혼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잠자리가 끊겼다면 이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거나 어느 한쪽에 책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A씨와 부인 B씨는 1960년대 후반 결혼했다. 재산을 수십억대로 불리며 풍족한 생활을 해왔지만 부부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부부는 1980년대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설상가상으로 전립선비대증을 앓았다. 칠순이 넘어서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남편의 거부장착 태도도 불만이었다. 남편에게 맞는 바람에 뇌진탕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B씨는 2004년 어느 날 남편과 다투다가 모욕적인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 결국 환갑을 눈앞에 두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B씨는 결혼한 지 40여년이 지나 이혼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적 유기'와 잠기간의 폭언·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과 함께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3년 섹스리스'를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정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아가면서 점점 점점 떨어져 성관계 횟수가 줄다가 딱히 누가 먼저할 것도 없이 성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부재가 부당한 대우라거나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화와 설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강조하며 "세 자녀가 훌륭히 성장해 독립했고 A씨의 여성이 길지 않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생활이 B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삼주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보라여행사 (순천 엔씨백화점 2층)	061)724-1688

수험생을 위한 특가 상품

[CCPF01-MUS] 상해/소주/주거각 4일 299,000원 ~ (출발일 12월11일(수), 25일(수) [단2회])	[CHPF02-MUAI] [상해경유]홍콩/심천/마카오 5일 999,000원 ~ (출발일 2014년 1월4일, 11일, 18일, 25일, 22일 [매주토요일])
--	--

여행의 계절 가을,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주세요!

무안출발 캄보디아 전세기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AVPF01-ZA1] [하나패คเกจ] 앙코르왓 4일/5일 599,000원 ~	[AVPF01-ZA2] [하나패คเกจ] 앙코르왓 4일/5일 799,000원 ~
[AVPF01-ZA3] [하나패คเกจ] 앙코르왓 4일/5일 999,000원 ~	[AVPF01-ZA0] [하나패คเกจ] 앙코르왓 4일/5일 1,149,000원 ~

JDX와 함께하는 제27차 글로벌 골프챌린지투어

하나골프 캄보디아 씨엠립 5일 부영 C.C

출발일 11월 28일(목) 054H ● 센슈리 1,399,000원 ~	[AVG1611311280Z1/KE1]
대회일 11월 30일(토) 036H ● 골프+관광 1,249,000원 ~	[AVG1611311280Z2/KE2]

상품정보

항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호텔: 씨엠립 센슈리 호텔(5성급) ※모함 및 특전사항

대회소개

※대회코스: BOOYOUNG G.C(舊. ANGKOR LAKE G.C) ※대회진행 및 방식: 세미스텝 or 풀스텝/스피리토 방식 ※대회대상: 신페리온 우승, 메달리스트, 롱기스트, 홀인원 이벤트 ※시상품: 트로피, 캐디백, 보스탄백, 골프클럽, 골프바디, 왕복 항공권 등 ※출원인사상: 스티크루츠 2인 무료 여행권 + 세인트니네티(6기) 20SET ※시상품 및 경품: JDX협찬 경품, 항공기버

하나투어 창립 20주년 기념 Festival

고객님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기간: 2013년 10월 1일 ~ 11월 30일

무인출발 [CBPF01-OZG] 북경(베이징) 4일 399,000원 ~ (출발일 11월 매주 화요일 출발)	[CCPF01-MUB] 상해/주거각/소주/항주 5일 449,000원 ~ (출발일 11월 23일, 12월 7일(토))
인천출발 [APP17] 3대륙(3NO+홍콩+대륙)출발권금 세부 4/5/6일 349,000원 ~ (출발일 11월 매일)	[APP12] 호랑투어+세일링보트 보라카이 4/5일 569,000원 ~ (출발일 11월 매일)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료, 여행정보료, 현지관광정보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족한 시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광명동 1번지 (주)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로구) ■관광평판신고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속속2급호텔이상 ■교통편: 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